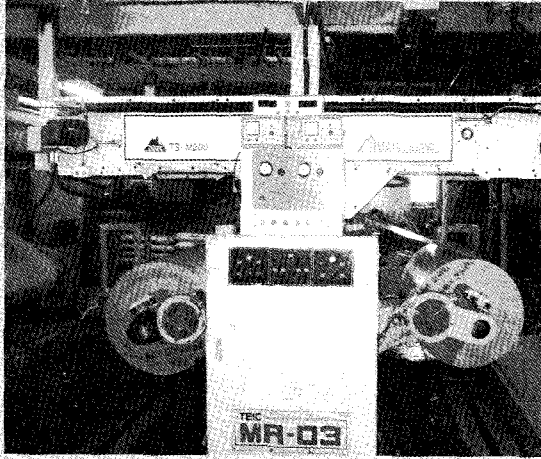


태백 엔지니어링, 에이팩에 오토 스플라이서 3대 설치 완료



태백 엔지니어링(주(대표 : 김용)은 골판지용 오토 스플라이서 전문 제조업체로서 2002년 9월 법인설립한 이후 국내 실정에 맞으면서 선진업체에 뒤지지 않는 오토 스플라이서의 개발에 매진하여 왔으며, 현재 150, 200, 300, 400mpm 급의 오토 스플라이서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1월 6일과 7일에 걸쳐 경남 양산에 소재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인 (주)에이팩에 오토 스플라이서 TS-M200 을 3대 공급하여 성공적으로 설치 및 운전 개시하였다. 동 기계는 지폭 2000mm, 최대 원지교체 속도는 200mpm이며, 노후화된 기존 일본제 스플라이서를 교체하여 설치되었으며, 전자 파워터 브레이크를 이용한 자동 장력 제어 기능이 적용, 듀얼-제로테일 헤드를 장착하여 강력하고 신뢰성 높은 접착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골심지 합지 공정을 도입한 에이팩은 이로써 최대 200mpm 속도의 웨젯앤드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생산성 및 수율 제고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규 기계의 설치와 함께 작년에 공급된 150mpm급

2대를 200mpm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태백 엔지니어링은 내년 3월 독일에 2800mm 지폭의 300mpm 모델 5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번 기회에 국내 업계 최초로 CE 마크를 획득하여 고객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